

 국토교통부	<h1>보도설명자료</h1>		
	배포일시	2020. 9. 17. (목) 총 4매(본문 2)	
담당부서	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	담당자	·과장 이진철, 사무관 황규오, 주무관 배석은 ·☎ (044) 201-4016, 4025, 4023
	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		·과장 강검윤, 서기관 한진선, 주무관 문지희 ·☎ (044) 202-7570, 7572, 7571
보도일시		배포 후 즉시	

추석 성수기 택배도 안전하고 원활하게 내 집 앞으로

- 9월 16일 국토부·고용부 및 택배업계 준비사항 점검 간담회 개최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와 고용노동부(장관 이재갑)는 9월 16일 택배업계* 간담회를 열고, 택배 종사자 안전과 보호 조치 현황, 추석 배송 준비 상황 등을 논의하였다.

* (참석자) CJ대한통운, 롯데글로벌로지스, 한진택배, 로젠택배, 경동택배, 쿠팡, 프레쉬솔루션, 물류정책관(국토부), 근로기준정책관(고용부)

○ 이번 간담회는 추석 성수기에도 원활한 택배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사자 안전 보호 조치 등 준비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하였다.

* 택배물량은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상반기 전년 대비 20% 증가하였고, 추석 성수기에는 전년 대비 30%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

□ 간담회에서, 택배업계는 종사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, 원활한 택배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.

○ 추석 성수기 동안 Hub터미널 및 Sub터미널에 분류인력·차량 배송 지원 인력 등 일 평균 1만여명 추가 투입

- 금년 8월 대비, 추석 성수기(9. 14~10. 16) 기간 중 일일기준 간선수송차량은 2,555대(20.4% ↑) 추가 투입, 택배기사·차량은 5,200명(8.9% ↑) 추가 투입

- 일일기준 Hub터미널 분류인력 1,604명(13.1% ↑), Sub터미널 분류인력 2,067명(26.3% ↑) 보강 및 동승인력(1,350명) 충원

* (택배체계) Hub터미널은 전국각지의 택배를 모으는 거점→지역별 Sub터미널에서 택배기사가 고객에게 배송

○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심야시간까지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, 종사자가 원할 경우 물량 또는 구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, 건강검진 및 전문 의료 상담 지원 등 개별 현장의 상황에 맞는 조치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.

- 또한 종사자의 업무 부담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첨단 자동화 기술 개발에 힘쓰는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환경 구축을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.

□ 택배업계의 조치 계획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9.21.~10.5. 2주간 비상연락체제(국토부-노동부-택배사-통합물류협회)를 구축(SNS)하여 차량 및 인력 추가투입 등 현황을 일일점검하고 각종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.

* 추석명절 성수기 대응 택배물량 관리강화 및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 (2차) 시달(911)

○ 아울러, 고용노동부는 8.13. 업계와의 공동선언에 따라 9월 말까지 택배종사자의 장시간 노동 방지 및 건강보호를 위해 현장지도를 추진할 계획이다.

* (장시간 노동 방지) 택배사(4개사) 물류센터 대상 근로·휴게시간 등 노동관계법 준수를 위해 현장 지도(9.21.~ 9.29, 지방관서)

* (건강보호) 택배사(4개사) 물류센터의 산안법 준수 지도 실시(9월) 연말까지 택배종사자 과로 실태조사 및 대책 강구

□ 국토교통부 전형필 물류정책관은 '유례없던 물동량의 급격한 증가로 택배 종사자들이 과도한 피로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부와 업계가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신속히 시행하겠다'고 하였고,

○ 고용노동부 김대환 근로기준정책관은 '정부도 노조와 업계가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다'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물류산업과 황규오 사무관(☎044-201-3816), 고용차별개선과 한진선
서기관(☎044-202-7572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① 택배 차량 및 인력의 추가 투입

- 차량 및 배송·분류작업 인력을 충원하여 증가하는 배송물량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도록 조치 및 택배기사의 작업량 조절 요청

② 정당한 지연배송에 대한 택배기사 불이익 조치 금지

- 택배기사의 피로도 증가 및 택배물량이 많이 집중되는 경우 정당한 지연배송 사유로 택배기사에게 페널티 부과를 금지

③ 영업소별 택배종사자 건강관리자 지정 및 건강상태 관리·보고

- 영업소별로 건강관리자를 정하여 업무시작 전후 택배종사자에 대한 건강상태 이상유무를 관리
- 배송업무가 힘들 정도의 건강상태로 판단되는 종사자에 대하여는 업무에서 배제하고 택배사 본사에 즉시 보고조치

④ 택배종사자 정기적 건강관리

- 영업소별 택배기사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건강검진 실시현황을 관리

⑤ 영업소 응급물품 구비 및 방역물품 지원

- 영업소에는 체세동기, 구급약 등 응급물품을 상시 비치하고, 마스크,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택배종사자에게 공급

⑥ 시설 방역강화 및 자체점검

- 추석 명절 성수기(특히, 9.21~10.5일 2주간)동안 소관 터미널 방역실태에 대하여 매일 자체점검을 실시하며, 정부·지자체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

* 작업자 간 거리두기, 작업자 마스크 착용, 출입자 관리, 발열체크 등

참고 2

추석 성수기 대비 인력·차량 총원 계획

투입 차량·인원	'20. 8. 1 ~ 31		'20. 9. 14 ~ 10. 16		증가분	
	일일투입 차량·인원	연인원 (일일투입인원×투입일수)	일일투입 차량·인원	연인원 (일일투입인원×투입일수)	일일투입 차량·인원	연인원 (일일투입인원×투입일수)
간선차량(대)	12,530 대	320,441대	15,085대	389,206대	2,555 대 (20.4% ↑)	68,765 대 (21.5% ↑)
택배기사·차량(명)	58,600 명	1,485,000 명	63,800 명	1,631,000 명	5,200 명 (8.9% ↑)	145,800 명 (9.8% ↑)
Hub 분류인력(명)	12,232 명	305,668 명	13,836 명	345,694 명	1,604 명 (13.1% ↑)	40,026 명 (13.1% ↑)
Sub 분류인력(명)	7,851 명	223,291 명	9,918 명	278,862 명	2,067 명 (26.3% ↑)	55,571 명 (24.9% ↑)
동 승(명)		-	1,350 명	32,400 명	1,350 명	32,400 명

* 7개사 자료 종합 (CJ, 롯데, 한진, 로젠, 경동, 쿠팡, 마켓컬리)